

「뜻밖의 만남」의 크로노토프

김 철 수

I. 서론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유년기 단편 중 두 번째로 등장하는 「뜻밖의 만남」(“An Encounter”)은 화자 소년과 그의 친구 마호니(Mahony)가 자신의 욕망을 지배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제도를 벗어나 모험을 감행하던 날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더블린의 발전소(Dublin's electric light and power station)인 피전하우스(Pigeon House)를 향한 한나절 동안의 더블린 탐험과 낯선 이와와의 만남,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더블린의 성인 사회의 마비된 모습에 대한 고발과 자신에 대한 각성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블린의 전력(light and power)을 공급하는 기관인 피전하우스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시니피앙으로서의 피전하우스는 비둘기로 상징되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 3위인 성령을 의미하고, 시니피에로서의 발전소는 빛과 권력의 근원인 하나님, 혹은 그의 은총을 연상시킨다. 그들의 여정은 곧 부성추구의 과정(Tindall 17-18)을 의미하기도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와 은총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빛과 권력을 향

해 가는 그들의 여정은 하나님의 영역, 즉 절대 권력의 영역으로의 도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또한 그들의 여정은 억압적이지만 한 제도와 기관이 그들의 삶에 부과하는 권위와 관습적인 질서를 벗어나서 진정한 인생의 인도자요 조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신적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 속에서 소년들은 오히려 꾀짜 노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중심의 부재”(김상효 63) 경험하게 될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중심의 부재 현상은 앞으로 이어질 작품 속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될 “마비”의 주제를 연상하게 한다. 결국 틴달(William York Tindall)의 말처럼 사실상 “하나의 추구, 즉 특정한 목적을 지닌 여행”으로서의 그들의 모험은 외적환경과 내적 약점으로 인하여 실패와 좌절을 맞게 된다(17).

이처럼 「뜻밖의 만남」에 대한 그간의 비평의 초점은 억압과 탈출의 시도, 이상한 만남으로 야기된 목적의식의 상실과 탈출의 실패,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좌절과 개인의 자각의 과정에 맞춰져 왔고, 그 근거로 작품의 말미에 등장하는 화자 소년의 자각의 장면, 즉 자신보다 약한 친구를 그동안 경멸해 왔었던 것을 후회하며 부끄러워하는 장면이 자주 인용되어 왔다. 소년들의 탈출의 과정에 대해서는 성도착과 규범위반, 그리고 낭만적 기대감의 좌절이라는 주제가 적용되어왔고(Kershiner 31), 작품 말미의 자각의 순간은 주인공 소년이 꾀짜 노인을 통해서 더블린의 성인사회의 마비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에피파니아의 순간”(김종전 115)이며, 또한 “오만은 죄요 자비는 미덕”(Tindall 19)이라는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주제 구성과 그 근거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는 또 다른 접근 가능성이 존재한다.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확장한 “사회·역사적 관계의 특수한 복합체”이자,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전기와 마찬가지로 ‘시대착오’와 ‘지리착오’를 서로 결합함으로써, 경이로움, 예측할 수 없는 끊임없는 변화, 그리고 비종결성을 가능하게 하는”(김옥동 79-81)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크로노토프(Chronotope)가 그러한 외형적 주제 뒤에 감추어져 있는 무의식을 드러내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김철수 41-44 참고). 요컨대, 본 작품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그 초점을 성도착이나 마비의 중심과 같은 더블린의 성인사회에 두는 대신에 이 이야기의 중심인물인 화자 소년에 두면 다소 색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식민지 치하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또래 집단보다 꽤 우수하다고 자부하는 한 어린 소년의 경험이 갖고 있는 억압과 탈출, 그리고 경험과 자각이라는 일련의 자의식적 경험의 과정이 「어떤 만남」이라는 단편의 크로노토프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단편의 크로노토프를, 절대자에게 접근하고자 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만함에 대하여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킴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표현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룬, 구약 성경의 ‘바벨탑 이야기’(Tower of Babel, 창세기 11장)의 크로노토프와 비교하여 두 크로노토프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을 살펴보고, 그 후에 드러나게 될 작품 속의 무의식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II. 바벨탑 이야기와 크로노토프

비록 조이스가 쓸모없는 투쟁과 허물어진 법제가 국가를 쇠약하게 하고, 교회의 영향과 설교는 개인의 독창성을 마비시킨다고 주장하면서(Joyce 2000, 123) 종교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았지만, 작품의 곳곳에서 제도나 습관으로서의 종교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김철수 39), 그의 작품에 대한 종교적 접근은 그 의미가 적지 않은 듯 보인다.

본 논문은, 또래집단에 대한 우월감 속에서 일탈을 시도한 「어떤 만남」의 화자 소년을 신과 동등해지고자 했던 오만함으로 신을 향하여 올라갔던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 한 상태에서, 바벨탑의 이야기와 소년의 한나절의 모험 사이의 크로노토프적 상호텍스트성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 작품의 주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논의의 원활한 전개를 위하여 우선 구약 성경에 나타난 바벨탑 이야기의 배경과 구조,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구약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고, 그 인간들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확장시킨 이야기가 나온다. 사람이 번성하고 세계가 확장됨에 따라서 죄가 이 세상에 편만하게 된다. 이에 분노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창세기 6: 6) 홍수를 내려 인간의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한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노아라는 신실한 인물을 선택하여 제 2의 창조에 참가할 사람과 육축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주를 짓게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120년 후에 하나님은 약 사십 일에 걸쳐서 온 지면에 홍수를 나게 하고, 홍수 후에는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함께 탄 모든 육축들에게 축복과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11-13)

이후 노아의 후손들은 거듭 변성하여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게”(창세기 10: 32)된다. 그러나 홍수 후에 여러 지역으로 그들의 영역을 확장한 인류는 하나님의 징벌과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고자”(창세기 11: 4) 함으로써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배반하게 된다. 사실 이 짧은 구절의 의미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정면도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또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인간의 또 다른 의지 혹은 시도가 함축되어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시 복을 주어 온 세상에 흠어져 그 영역을 넓히며 살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창세기 9: 1-2)

그러나 인간들은 후에 바벨탑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될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자 했고, “이름을 내고자” 함으로써 자신들의 오만함을 보여주었고,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고자”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더 한정된 지역에서 인간들만의 삶을 계획하고 추구하게 된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11: 1-5)

이러한 바벨탑 건설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구약성경에 따르면 바벨탑은 홍수 이후에 태어난 노아의 손자인 니므롯(Nimrod)이라는 왕에 의해서 세워졌다(창세기 10: 6-14). 인류 최초의 왕이 된 니므롯은 니느웨(Nineveh)라는 성을 비롯한 여러 제국을 세우고 자신과 그 왕조를 신격화하게 되며, 결국 신에 대항하는 그의 반역 행위는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하늘에 닿아 인간의 이름을 내게 하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바벨탑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고 다스리던 신을 배신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이 신의 영향력을 벗어나 오히려 그러한 신의 영역에 도달하고자 시도함으로써 지극한 오만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며, 셋째는 높은 탑이라는 구심점을 통해서 사람들의 거주 영역을 제한함으로써 백성들을 자신의 통치 밑에 두고자 하는 정책을 사용했다는 것이다(김희보 참고).

그런데 니므롯의 이 모든 정책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반역이 아닐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홍수 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며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고 명령함으로써 노아의 후손들로 온 땅에 고루 흠어지게 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니므롯과 그 일당은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을 어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온 지면에 흠어져 충만하며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적 “오만”의 극치의 소산이 곧 ‘바벨탑’인 것이다. 그리고 절대자인 신의 영역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과도한 오만을 부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신 심판은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탑 쌓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시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

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 6-9)

요컨대, 절대자의 영역에 접근하고자 하는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내재된 오만이다. 따라서 ‘바벨탑 이야기’의 크로노토프에서는 절대 권력을 향한 호기심 혹은 욕망에서 출발한 일탈 행위가 그러한 행위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오만과 욕망으로 인해서 무력화되거나 좌절되고 마는데, 그러한 좌절의 결과 뒤에는 인간의 철저한 ‘오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무언의 경고가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크로노토프가 「어떤 만남」의 서사 구조 가운데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III. 「어떤 만남」: 바벨탑 크로노토프

본 논문은 다소 엉뚱한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조이스의 「어떤 만남」이라는 단편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마비의 도시 더블린을 탈출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다시 마비와 부재의 그들로 돌아오고 만 주인공 소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이 이야기에서는 오만한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고, 강한 자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년이 전력이 아닌 ‘권력’의 상징인 피전하우스 발전소에 접근하고자 하는 욕망을 실천에 옮긴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시도는 낯선 만남을 통해 다소간의 혼란을 겪으며 좌절되고, 소년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그 후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오만과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었던 자신을 재발견 한 후 통렬한 자기 인식과 반성에 이르게 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소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소년의 자의식의 변화를 단계별로 추적해서 「어떤 만남」의 서사구조에 드러난 ‘바벨탑 크로노토프’의 형성과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억압과 탈출의 욕망

『더블린 사람들』의 주인공들을 비롯한 모든 아일랜드인의 삶 속에서 가톨릭이라는 종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실제로 아일랜드의 많은 가톨릭 신부들은 아일랜드 독립운동의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조이스의 작품 속에 나타난 신부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더블린 사람들』의 전체 주제인 ‘마비,’ ‘경절형,’ 그리고 ‘성직매매’ 등과 연관된 부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박진훈 44). 또한 대부분이 가톨릭 교육기관의 교사를 맡고 있는 그 신부들의 성품은 학생들에 대한 연민이나 부성애보다는 ‘권위주의’와 ‘폭력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특히 「어떤 만남」의 버틀러 신부(Father Butler)의 고정도가 매우 심하게 보인다.

“도대체 이 쓰레기는 뭐냐?” 그는 다그쳤다. “아파치 추장! 넌 로마 역사는 공부하지 않고 이런 걸 읽고 있었니? 학교에서 이 따위 것을 다시 한 번 눈에 띄게 했던 봐라! 그걸 쓴 놈은 내 생각엔 술값이나 벌려고 쓰는 어떤 경칠 놈일 거야. 너처럼 교육을 받은 애가 그 따위 것을 읽다니 놀랍구나! 만일 네가... 초등학교 학생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만. 자, 딜런 너한테 단단히 충고하지만 제발 공부 좀 해. 그렇지 않으면...” (D 20)

학생들의 감수성이나 관심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기준에 의거해서 학생들의 모든 활동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하여 비판과 꾸지람을 일삼는 버틀러 신부의 언행은 기존의 질서로부터의 일탈을 시도하는 모든 기록들을 무질서나 혹은 마비의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는 소위 “질서 중심의 연대기”를 은유적으로 암시하고 있고, 그 신부의 억압적 교육 방법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어린 학생들의 시도를 통해서, 상징적 문화질서로부터의 근본적인 탈출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탈출의 욕망을 내재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진짜 모험은 집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고 그들은 오히려 바깥으로 눈을 돌려야”(D 21)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모험 행위는 근대사회와 교회, 그리고 국가가 공모하여 대안적 정체성을 거부하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억압의 기제는 소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상대적 우월감과 오만을 자극하여 그로 하여금 ‘바벨탑 크로노토프’의 조건 속에 빠져들게 하고 만다. 그리고 이러한 ‘크로노토프’적 조건들

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화자 소년의 상대적 우월감이나 오만,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감행하는 거짓말 등의 일탈행위를 조장하게 된다.

2. 우월감, 혹은 오만

본 논문의 초점이 되고 있는 「어떤 만남」은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자면, 권력에 억눌린, 어리지만 자유를 갈망하는 영혼이 그 권력의 억압을 벗어나서 진정한 ‘부성’을 추구하는 내용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고유영역을 벗어나 절대 권력(light and power)에 접근한 한 개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조이스의 인물들 중 가장 최초로 탈출을 꿈꾸게 되는(Cheng 83) 주인공 소년은, 일탈을 시도하는 소년들의 집단과 연합하여, 교회와 국가 그리고 학교가 조장하는 담론을 뒤로하고 야생의 서부 생활을 꿈꾼다. 그러나 이 소년은 심정적으로는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릴 수만은 없는 다소 ‘오만한 우월감’의 소유자이다. 그는 딜런의 집에 놀러 갔을 때에도 “딜런 부인이 풍기고 간 아련한 냄새”(D 19)에 마음을 들 만큼 성숙한 성적 호기심까지 갖고 있으며, 순수한 낭만적인 반항정신만을 가진 소년이 아니라 “공부만 하고 배짱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워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부득이 이 인디언 팀이 된 마지막 부류의 아이들”(D 20) 중 하나이다.

사실상 이 소년이 좋아하는 모험이야기 또한 또래의 아이들 사이에 인기를 누리던 서부 이야기가 아닌 미국의 탐정소설이다. 이 두 이야기의 차이는, 전자가 자신의 남성적 패권을 위협하는 남자들을 살해하는 남자들이 나오는 이야기라면, 후자는 다양한 외부적인 성적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적 평형감을 애써 지켜나가는 엄세적인 남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Leonard 57). 환언하자면, 화자 소년은 즉흥적인 야성미를 가진 ‘디오니소스’적인 이야기 보다 절제와 추리력, 그리고 판단력이 따르는 ‘아폴론’적인 이야기를 선호하는 그의 성품을 바탕으로, 애초부터 또래들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한편으로는 자신을 동료들과 동일시하기는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들을 대함으로써 그들과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한다(Kershner 51). 이처럼 동료들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의 사고는 언제나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 앞서간다.

그러나 학교의 구속에서 일단 벗어나면, 나는 또다시 야성적인 기분이 되어 이러한 무법천지의 애기만이 내게 주는 듯한 도피를 갈망하기 시작했다. 저녁이

면 벌이는 전쟁놀이도 아침에 있는 학교의 정규 수업처럼 내게는 마침내 따분해지고 말았다. 왜냐하면 진짜 모험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모험이란 집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밖에서 찾아야만 한다. (D 20-21)

‘진짜 모험’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 소년은 기껏해야 친구 집 뒷마당에서 전쟁놀이를 하던 아이들에게 대단히 거창한 계획, 즉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피전하우스 발전소를 보러 가기로 한”(D 21) 계획을 알려준다. 그 다음날 또래들 중 그 누구보다도 먼저 모험의 현장에 나타난 소년은,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나게 되자, 인디언 놀이를 하면서, 지나가던 아이들을 놀려대던 마호니와는 달리 “애들이 너무 작으니 그만 두자”(D 22)고 말하며 철든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부두에서 점심을 먹으면서도 마호니는 “저런 큰 배를 하나 타고 저 멀리 바다로 나가면 정말 신나겠다”(D 23)고 말하면서 그 또래 아이들다운 소박한 소망을 피력하는 반면 그 소년은 “학교에서 대충 배운 바 있는 지리에 관한 지식이 내 눈앞에서 점점 분명해지는 것을 보거나 상상하며”(D 23), 자신의 지적 우월감을 자랑한다. 그는 또한 외국인 선원들 중에 누가 초록색의 눈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곤 하는데, 자신은 “그전부터 그런 혼란스러운 생각을 해왔다”(D 23)고 독백한다. 여기서 화자 소년이 사용하는 “혼란스럽다”는 어휘는 자신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그런 독특하고 기발한 호기심을 “혼란스러워” 할, 다른 동료나 독자들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말로, 다시 한 번 화자 소년의 지적 우월감을 엿보게 하는 일종의 바흐쎌 식의 “헤테로글로시아”인 것처럼 보인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그는 낭만적 모험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마호니에게 “모험이 발각되지 않으려면 4시까지에는 돌아가야 한다”(D 24)고 암시함으로써, 그가 갖고 있는 예리하고 정확한 감각을 자랑한다.

이와 같은 또래 집단의 아이들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은 이후에 피자 노인을 만났을 때도 소년의 의식의 안과 밖에서 그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우월감을 합리화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소년은 여러 가지 거짓말을 통해 스스로와 타인을 기만하게 된다.

3. 거짓말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별화하고자 하는 화자 소년의 두 번째 특성은 거짓말이

다. 어린 화자 소년은 이제 자신의 우월감에 심한 도전을 받는 계기를 갖게 된다. 그것은 또래집단이 아닌 성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이다. 이 때 이 소년이 만나게 되는 성인은 어린 소년이 겪어온 길을 다 겪어왔고, 지금 그 시기의 소년들이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비록 그 노인은 “한 손을 허리에다 얹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D 24) 있어서 권위와 폭력의 상징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고, 또한 갖가지 성적인 농담과 수상쩍은 행동, 또는 “궤도를 따라 빙글빙글 맴돌고 있는 듯한”(D 26) 말과 행동 등으로 인하여 “도착된 성”(Kershiner 51)이나 마비의 수사학 등의 주제를 형상화 하고 있는 인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노인에게는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보편적인 인간성”(Hart 32)이 존재하기도 한다.

소년은 그 노인이 읽었느냐고 물어본 책들을 “다 읽은 채”(D 25)하는가 하면, 애들이 읽을 수 없는 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왜 애들이 읽을 수 없느냐”(D 25)고 솔직히 궁금증을 표현하는 마호니와는 달리 이 소년은 그런 질문이 오히려 “그 사람이 나도 마호니처럼 머리가 둔한 놈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D 25)고 생각하며, 친구와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애쓴다. 또한 여자 이야기를 하던 노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년은 친구 마호니에게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짓말을 제안한다. 즉 이름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친구에게는 머피(Murphy)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또 자기 자신을 스미드(Smith)라고 불러달라고 한다(D 25).

그가 친구인 마호니에게 붙여준 ‘머피’라는 이름은 상대적으로 하층 계급에 속하는 아일랜드식 이름이고, 자신에게 붙인 ‘스미드’라는 이름은 더 상위 계층인 앵글로 색슨식 이름이다. 물론 두 이름 다 진부한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그 이름을 생각해 낸 화자 소년의 상상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Kershiner 45), 이것은 곧 소년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친구에 대한 오만한 우월감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

4. 좌절된 오만, 좌절된 탈출, 그리고 자각

잠시 후 다시 돌아온 그 노인이 거칠고 말을 듣지 않는 아이에 대하여 심한 체벌을 해야 한다고 말하자 소년은 지금까지의 오만한 태도에서 약간 벗어나 움찔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는 이런 감정적인 말에 깜짝 놀라 무심결에 그의 얼굴을 훑듯 쳐다보았다. 그렇게 하자 나는 쟁긋 움직이는 이마 아래서 나를 노려보는 한 쌍의 질푸른 눈동자와 마주쳤다. 나는 또 다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말았다.(D 27)

이 노인에게서 소년이 알아차리는 녹색의 눈동자는 노인의 벌어진 이빨과 또한 부두에서 그가 바라보았던 외국인 선원의 눈동자 색깔과 함께 신비감의 허와 실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기능한다. 또 그 노인의 표정 속에 숨어있는 공포스러운 기운은 결국은 소년의 모험을 좌절시키고, 그를 위협하여 순응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더블린의 모험의 본질이다(Peake 18) 결국 오만과 위선의 자세를 가지고 절대 권력에 접근하려고 했던 소년의 모험은 괴팍스러운 노인의 출현으로 그 본질이 희석되어 무력화되어 버리고, 화자 소년과 친구는 돌아갈 길만 찾게 된다.

나는 잠자코 언덕을 올라가긴 했으나, 발목이 붙잡히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다. 언덕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나는 몸을 빙 돌리며 그를 쳐다보지 않은 채 들판을 가로질러 큰 소리로 불렀다.
“머피!” (D 28)

넓은 들판에 괴팍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괴짜노인과 단둘이 앉아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벗어나게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 때 자신이 무식하고 둔하다고 경멸해 마지않던 마호니 외에는 자신이 의존할 사람이 없었다. 결국 이 괴짜 노인과의 낯선 경험을 통해서 소년은 자신의 약점을 철저히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이 노인은 오히려 학교나 교회와 같은 제도권의 교육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내용을 체득하게 해 준 산 스승이 될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편으로는 절대 권력의 상징인 ‘발전소’까지 그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절대자 앞에 나오기 전에 해결해야 할 일, 즉 제 눈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형제 눈의 티끌을 보며 비판하는(마태복음 7: 3-4) 지적, 정신적 오만과 위선의 문제를 먼저 깨닫고 해결하게 하는 성령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위기의 순간에 평소에 무시하던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서 ‘어이’하는 대답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마음속으로 언제나 약간 무시하고 있던”(D 28) 친구를 구세주처럼 여기며, 그간의 오만했던 마음을 뉘우친다. 피이크(Peake)의 말처럼 소년의 뉘우침이 “아직은 부분적이고, 성숙치 못한 자각일

수 있으나”(18), 이야기의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빙빙 돌기만 하는 더블린의 다른 성인들보다 훨씬 더 큰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IV. 결론

본 논문은 조이스의 단편집 『더블린 사람들』의 두 번째 단편인 「어떤 만남」을 다시 읽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비평과는 다소 색다른 경로를 통해, 마비, 탈출의 시도, 그리고 자의식적인 깨달음 등 이미 보편화된 주제에 도달하고자 시도해 보았다. 이 단편도 『더블린 사람들』의 다른 단편들처럼, 마비된 도시의 그물망 속에서 스스로에게 내재한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채 역시 마비된 삶을 살고 있는 더블린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세 편의 유년기 단편들이 다 그렇듯이 이 작품도 어른들에게서는 억압과 권위와 다양한 종류의 폭력이 발견되고, 아이들에게서는 낭만적인 도피의 충동과 시도, 그리고 좌절과 그에 따른 자의식적 각성 등의 자세가 나타난다.

예수회 신부들이 가르치는 학교의 억압적인 분위기로부터 낭만적인 탈출을 꿈꾸는 소년들은 방학이 되기 전 하루 동안의 ‘일탈’을 계획한다. 그러나 인디언과 서부 세계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며 낭만적인 일탈의 분위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조성했던 친구는 그 자리에 나와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화자 소년과 친구 머피만 매우 제한된 일탈을 경험하고, 그것마저도 낯선 괴짜 영감과 우연한 만남 때문에 좌절되고 만다. 소년들의 낭만적인 일탈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더블린의 마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의 기회가 되고 말았으며, 소년들은 다시 마비의 중심으로 돌아와 자신들에게 부과된 마비와 부재의 짐을 계속 지고 갈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을 화자 소년과 그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와 상황에 맞춰서 재독하면,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와 구조상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작품과 삶 사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독자의 창조적인 인식을 통해서 작품을 끊임없이 쇄신시켜주는” 크로노토프, 즉 시공성의 이론을 적용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한 텍스트 속에 작가가 설정한 크로노토프는 실제세계나 혹은 다른 텍스트 등이 담고 있는 크로노토프와의 대화적

관계 또는 상호텍스트성을 통해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이나, 동일한 주제로 가는 다른 경로를 독자에게 보여 주기도 한다.

따라서 『더블린 사람들』의 한 단편인 「어떤 만남」의 크로노토프를 구약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의 크로노토프와 겹쳐 읽게 되면, 억압에 저항하는 낭만적인 감수성의 화자 소년은 또래 집단과 자신을 차별화하고자 하는 오만과 위선에 물들어 있는 모습으로 해석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의 능력에 의존한 채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사하고, 피전하우스를 찾아가는 그들의 여정은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자하는 유대인들의 행위와 유사하며, 낯선 만남을 통해서 혼란스러워지고 무력화되는 그들의 욕망은 언어를 혼란시켜서 유대인들의 오만을 징벌하고자 했던 절대자 하나님의 의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크로노토프의 대화를 통해서 도출되는 주제는 동일한 것인데, 그것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절대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과 사랑이라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이웃과의 화해와 사랑의 회복”(마태복음 5: 24)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바흐전이 주장한 시공성, 즉 크로노토프의 이론은 그것이 지닌 대화적 속성으로 인해서 「어떤 만남」이라는 단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 드러나는 것은, 더블린의 물리적, 정신적 마비상태를 들추어내어 고발하고자 하는 외형적인 의도 뒤에 함의되어 있는 ‘자기중심주의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타자 중심의 관계성 회복’에 대한 회구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조국의 도덕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절대절명의 조건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전주대)

인용문헌

- 김경아. “『남도사람들』 연작의 크로노토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4집 (2003년): 208-233.
- 김상호. “조이스의 해체주의: 『더블린 사람들』의 중심부재와 그 인식.” 『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11권 1호 (2005년 6월): 59-89.
- 김옥동 편역, 『바흐친과 대화주의』. 서울: 나남, 1990.
- 김종건. 『제임스 조이스 문학』.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5.
- 김철수. “「은총」과 「율기」의 크로노토프.” 『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11권 1호 (2005년 6월): 37-58.
- 김희보. “바벨탑과 니므롯.” “<http://kcm.co.kr/bible/gen/gen108.html>” 한국 컴퓨터 선교회 홈페이지.
- 박진훈. “『젊은 예술가의 초상』과 신부의 재현.” 『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10권 1호 (2004년 6월): 41-66.
- Bakhtin, Mikhail. *The Dialogic Imagination*. Trans. & Ed. Caryl Emerson and Michael Holquist.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1.
- Burgess, Anthony. *Rejoyce*.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65.
- Cheng, Vincent.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New York: Oxford, 1959.
- Gifford, Don. *Joyce Annotated: Notes for Dubliner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 Joyce, Jame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 Walton Litz.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9.
- _____. *Occasional, Critical and Political Writing*. Ed. Kevin Bar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Kenner, Hugh. *Dublin's Joy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7.
- Kershiner, R. B. *Joyce, Bakhtin, and Popular Literature: Chronicles of Disorder*. Chapel Hill: North Carolina University Press. 1989.

- Leonard, Garry M. *Reading Dubliners Again: A Lacanian Perspective*.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3.
-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London: Edward Arnold, 1977.
- Hart, Clive. *James Joyce's Dubliners: Critical Essays*. London: Faber, 1969.
- Tindall, William York.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78.

Abstract

The Chronotope in "An Encounter"

Cheol-soo Kim

This study aims to re-read "An Encounter" in James Joyce's *Dubliners*, comparing its narrative structure with that of the story of "Tower of Babel" in the Old Testament. This comparative reading proceeds in the light of the "Chronotope," which, according to Mikhail Bakhtin, enables the exchange between work and life, and constitutes the distinctive life of the work. The intertextuality of the chronotopes in literary works provides a reader with a possibility of a new interpretation or different paths leading to the same theme.

In "An Encounter," just as in the other two childhood stories in *Dubliners*, the world of adults represents oppression, authority, and diverse kinds of violence. The children represent the impulse, the attempts and frustrations concerning romantic escape, and the attitude of awakening that follows.

However, the chronotope of this story, which is in the same line with that of the story of the Tower of Babel, tells us a different story. The chronotopic reading of the story changes the hero with a romantic sensibility and resistive attitude toward the adults into the proud Jew, who built the Tower of Babel to reach God in Heaven, the boys' journey to the Pigeon House into the Jew's tower-building, and the confusion of their goal to reach the Pigeon House due to a strange encounter with "a queer old josser" into the confusion of languages to mar their attempt to reach God.

Meanwhile, the dialogue between the two chronotopes produces the same theme: What man has to pursue is not blind absolute power, but humility and love, through which we can think much of the other. Or, on the other hand, as the New Testament says, "Reconciliation should precede the worship service to God."

- Key words: Joyce, Dubliners, "An Encounter", Bakhtin, Chronotope, intertextuality, Genesis, Tower of Babel (조이스, 『더블린 사람들』, 「어떤 만남」, 바흐쎈, 크로노토프, 상호텍스트성, 창세기, 바벨탑)